

# PK 골 없이 20골, 손이 유일



토트넘 손흥민(왼쪽)이 8일(한국시간) 안필드에서 열린 2021~2022시즌 EPL 36라운드 리버풀 원정경기에서 후반 11분 선제골을 뽑은 뒤 해리 케인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리버풀(영국) | AP뉴시스

리버풀전 1-1 무승부 기여...득점랭킹 2위 손흥민 "득점왕보다 팀 UCL 경쟁 더 중요"



아시아선수로는 최초로 20골 고지를 밟았지만, 손흥민(30·토트넘)의 전진은 멈추지 않는다. 손흥민은 8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벌어진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6라운드 리버풀과 원정경기에서 후반 11분 선제골을 뽑아 팀의 1-1 무승부에 기여했다. 토트넘은 4위 아스널에 이어 5위에 머물렀지만, 귀중한 승점 1을 보태 19승5무11패, 승점 62를 쌓았다.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도중 날린 치명적인 카운터펀치였다. 0-0으로 맞선 후반 11분 손흥민은 빠른 역습 끝에 라인언 세세봉이 내준 크로스를 군더더기 없는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리버풀 골문을 열었다. 올 시즌 EPL 20호 골이자, 통산 90번째 골이다. 후반 29분 루이스 디아스의 동점골이 터져 1-1 무승부가 됐지만, 우승 경쟁에 한창인 리버풀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다.

이날 득점으로 손흥민은 아시아선수로는 최초로 유럽 5대리그(잉글랜드·스페인·독일·이탈리아·프랑스)에서 단일시즌 20골을 수확했다. 1일 레스터시티전 멀티골로 유럽리그 단일시즌 한국인 역대 최다골 기록(1985~1986시즌 분데스리가 차범근·17골)을 갈아 치운 데 이어 아시아축구 역사에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골의 순도로 봤을 때 손흥민의 활약에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누누 이스파리투 산투 전 감독 때부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부임 이후에도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한 그의 20골 중 페널티킥(PK) 골은 전무하다. 이번 시즌 유럽 5대리그에서 20골을 넘긴 11명의 선수들 중 PK 골이 없는 것은 손흥민이 유일하다. 2012~2013시즌 토트넘 소속이던 가레스 베일(현 레알 마드리드)이 PK골 없이 21골을 터트린 이후 9시즌만의 기록이다.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운 것에 그치지 않고 결과까지 불러올 수 있는 득점이다. 토트넘은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권이 주어지는 4위 자리를 아스널과 다투고 있다. 아스널과 맞대결을 포함해 3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순위를 뒤집을 여지는 충분하다.

이번 시즌 EPL 득점왕 경쟁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20골의 손흥민은 모하메드 살라(리버풀·22골)에 이어 득점랭킹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날 맞대결에서 살라가 침묵한 가운데 손흥민이 2골차로 따라붙음에 따라 경쟁은 한층 더 흥미진진해졌다.

경기 후 손흥민은 여전히 팀의 목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나의 득점왕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팀의 UCL 경쟁"이라며 "항상 팀을 돕기 위해 노력 중이고, 승리할 수 있다면 내가 골을 넣지 못해도 된다. UCL에서 뛰는 것이 우리의 뚜렷한 목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순위	선수(소속팀)	득점(남은 경기)
1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22(3)
2	손흥민(토트넘)	20(3)
3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유)	18(1)
4	디오구 조타(리버풀)	15(3)
5	사디오 마네(리버풀)	14(3)

## 영국 오피셜 차트+1억뷰 사이 '땃땃' 심상치 않네

BTS 슈가와 공동 작사·작곡·프로듀싱 눈길



싸이·슈가

가수 싸이가 국내외에서 '윙윙' 날고 있다.

싸이가 5년 만에 선보인 정규 9집 '싸다9'의 타이틀곡 '땃땃'(That That)으로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까지 진입하며 '원조 글로벌 가수'의 위업을 과시했다. 뮤직비디오로는 조회수를 크게 올려며 공개 일주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

8일 영국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땃땃'이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61위를 기록했다. 싸이가 해당 차트에 이름을 올린 건 2012년 '강남스타일'의 싱글 차트 1위, 2013년 '젠틀맨'의 10위 이후 9년 만이다.

영국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팝음악 시장의 권위 있는 차트로 인정받는다. 앨범과 싱글을 포함해 다양한 음악 순위를 집계한다. 싱글 차트는 스트리밍과 음원·음반 판매량 등을 토대로 영국에서 인기 있는 곡 순위를 주간 단위로 매긴다.

'땃땃'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피쳐링한 곡이자, 두 사람이 함께 공동 작사, 작곡, 프로듀싱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두 사람이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의 뮤직비디오도 가파른 인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음원과 동시에 공개한 후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넘었고, 8일 오후 1억1931만 회를 기록했다.

싸이의 인기는 오프라인 무대에서도 드러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대학가 축제 등 각종 행사가 재개되는 가운데 싸이는 '섭외 0순위'로 꼽히며 '싸데미'(싸이+엔데믹)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싸이가 한 대학 축제 무대에서 '폐창'의 객석 호응을 이끌며 무려 100분 동안 앙코르까지 모두 16곡을 열창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 댓글이 SNS와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르고 있다.

싸이는 지난달 컴백 청음회에서 "이제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가고 있어서 대학 축제가 재개됐다고 하더라"며 "'땃땃'이 엄청난 폐창을 일으키지 않을까 한다.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한껏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SK 첫 통합우승 '-1'

챔프 4차전 94-79로 KGC 제압 허일영 2Q 7점...초반 공세 앞장



서울 SK가 창단 첫 통합우승에 1승만을 남겼다. 정규리그 우승팀 SK는 8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안양 KGC와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7전4승제) 4차전 원정경기에서 김선형(19점·7어시스트), 자비 워너(27점·12리바운드) 등 주전들의 고른 활약 속에 94-79로 이겼다.

홈 1·2차전을 잡은 SK는 6일 원정 3차전을 내렸지만 연패를 당하지 않고 시리즈



SK 허일영(왼쪽)이 8일 안양체육관에서 벌어진 '2021~2022 KGC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4차전 도중 KGC 오세근의 수비를 피해 골밑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안양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전적 3승1패로 앞섰다. SK는 1승을 보태면 역대 4번째이자 구단 역사상 첫 번째 통

합우승을 달성한다. 양 팀의 5차전은 1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펼쳐진다.

SK 전희철 감독은 4차전에 앞서 3차전을 복기하며 정신적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좋은 분위기 속에 경기를 즐겨야 했는데 3차전에선 선수들도, 나도 그렇지 못했다. 1·2차전 승리로 느슨해진 부분도 있었다"며 "오늘은 초반부터 즐겁게 해야 한다. 1골을 먹더라도 빨리 공격해서 득점하면 된다. 스피드와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SK가 초반 좋은 흐름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선수는 베테랑 포워드 허일영(13점·3어시스트)이었다. 치열했던 1쿼터 종료 3분여를 남기고 SK 안영준(12점·5리바운드)이 개인반칙 2개째를 범했다. KGC 변준형(11점), 전성현(13점), 경우에 따

라선 오세근(14점·8리바운드)까지 수비하는 안영준의 파울이 늘자 SK 벤치는 변화의 줄 수밖에 없었다. 대체 카드가 허일영이었다. 1쿼터 2점을 올린 허일영은 2쿼터 8분여를 소화하며 3점슛 1개를 포함해 7점을 뽑으며 SK의 초반 공세에 앞장섰다.

허일영의 분전으로 위기를 넘기고 40-31로 앞선 가운데 하프타임을 맞은 SK는 3쿼터 들어 워너와 김선형이 내·외곽에서 고르게 득점한 덕에 KGC의 맹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다. SK는 4쿼터 초반 김선형, 워너, 안영준의 연속 득점으로 72-54, 18점차까지 달아나며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 종료 4분여를 남기고 최준용(21점·4어시스트)이 테크니컬 파울로 5분차 퇴장을 당했지만, 승부의 추는 이미 SK로 많이 기울어 있었다. 안양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면역력이 건강과 수명을 좌우 합니다! 슈퍼 유산균 11-1

미, 일, 한, 중 4개국 특허 발명명칭 : 자연면역활성제, 감염증 예방치료제 (특허 공개번호 : 10-2017-0110076)

### 기적의 수치가 현실로

동경대 약학부에서 4년 이상에 걸쳐 1만 종류 이상의 소재를 조사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면역활성력을 가져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을 발견! 11월 1일에 발견했다는 뜻으로 11-1을 학술명으로 삼았다. 인간의 몸에는 60조개의 세포가 있고 그 중 2조개는 면역세포입니다. 우리의 몸을 외부병원균(바이러스 등) 침입을 막아주는 방어시스템으로 몸을 보호하는 근원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인체의 모든 기능들이 건강해집니다.

면역활성화수치(특허 및 학술논문에서 발췌)



※ 누에를 대상으로 임상한 결과입니다.

### 이런분들께 권합니다.

- 고혈압 당뇨로 걱정되시는 분들
- 관절통증 및 만성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 전립선염을 앓고계시는 남성분
- 야도피성 피부염으로 고민이신 분
- 여드름에 예민해 학습이 어려운 학생
- 피부가 거칠고 잔주름이 많으신 분
- 임파선 종양이나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
- 만성비염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
- 면역력이 약해 감기에 자주걸리시는 분

감염증 예방 치료제 특허 슈퍼유산균 11-1을 추천합니다.

체험담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www.benese11.co.kr



L · P(Lactobacillus plantarum) 11-1

전국 단위 대리점모집  
02-976-9729 / 010-9380-3285  
(농협 302-0723-0010-31 예금주 : 박은영)

이 광고를 보시고 연락주시는 분께 3통이상 구매시 5%, 6통이상 구매시 10%, 10통이상 구매시 15%를 할인 해 드립니다.